

사 회

전남대·조선대병원 수년째 인턴 부족사태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

수도권 출신 학생 50% 넘어 졸업 후 'U턴'

의학전문대학원생 배출땀 더욱 심각할 듯

호남지역 거점 병원이자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수년째 인턴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지역 의료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배출되는 2013년부터는 졸업 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예상돼 지역의료 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의료 기초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지역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2010년 인턴 지원을 마감한 결과, 전

남대는 정원에 11명이 미달됐으며 조선대는 2명이 부족했다.

전남대의 인턴 지원은 ▲2008년 87명(112명 정원)-25명 미달 ▲2009년 97명(101명)-4명 미달 ▲2010년 92명(103명)-11명 미달, 조선대 인턴은 ▲2008년 42명(44명)-2명 부족 ▲2008년 35명(46명)-11명 결원 ▲2010년 42명(46명)-4명 부족 등으로 각각 3년째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북대병원이 58명 모집에 35명, 진주 경상대병원 41명 모집에 33명, 부산대병원이 78명 모집에 62명 등이 지원하는 지방 거점병원들이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은 154명 모집에 166명, 세브란스병원은 227명 모집에 255명, 삼성서울병원은 107명 모집에 121명이 지원하는 등 수도권 병원은 인력이 넘쳤다.

이처럼 전남대·조선대병원의 인턴 지원이 미달된 이유는 수 년전부터 지역 우수인재들의 수도권 의과대학 진학이 급증한 데다 지역 의과대학의 수도권 출신 학생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이들이 졸업 후 다시 연고 등을 따져 수도권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이 55%, 조선대는 66%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의과대학원 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2013년부터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의대 관계자는 “의료 시설과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여기에서 젊은 의사 지방생들의 수도권 진출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역 의료계의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역원 공천현금 혐의

도의원 등 영장 재청구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5일 공천 대가로 수역원의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현직 도의원 Y씨와 전직 도의원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 과정에서 수역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 현직 도의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 부분에서는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Y의원 등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비례)을 받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시 여권의 모 인사에게 각각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현대삼호중 또 사망 사고

작업 중 질식...1명 숨지고 1명 부상

3년새 잇단 사고 안전불감증 심각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 이던 인부 2명 중 1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5일 오후 3시20분께 영암군 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연삭기로 선박 블럭 내부 마감 작업을 하던 강모(4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목포 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작업 중 질식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강씨보다 먼저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던 또 다른 직원 1명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강씨는 건조중이던 10만 t급 선박의 한 블럭 내부 높이 2.5m

가람의 박스 내에서 혼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은 삼호중공업의 협력업체인 T기업에 소속돼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20분께 삼호중공업 운전설비 작업장에서 김모(26)씨가 13m 아래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같은해 7월 28일 오전 9시10분께 가공부 작업장에서 일하던 양모(43)씨가 11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007년 8월 13일에는 중제관 공장



25일 광주시 서구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직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 타카하시 마코토(앞 줄 왼쪽) 대표와 코이테 유타카(7번부터) 사무국장이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던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99엔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99엔 발언 유명화 장관 규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광주 미쓰비시 앞 기자회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5일 유명화 발언에 대해 “외교적 자주권을 포기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나”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25일 광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이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99엔 후생연금 지급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정부가 1엔당 2천원씩, 즉 19만8천원을 피

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며 “이 같은 발언을 한 유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26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영덕 할머니와 시민모임 회원, 할머니들의 소송을 일본에서 지원해온 '나고야 소송지원회' 다카하시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지급한 99엔을 받는 대신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8014
김종두



전교조·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서울영등포경찰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잡고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서에 돈 봉투 두고간 사람은?

상다물

○광주북부경찰이 최근 수사와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20만 원이 돈 봉투의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 눈길.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부경찰 수사와 경제팀 문모(45)경의 책상 옆에 놓여 있던 가로 30cm, 세로 40cm 크기의 음료수 상자 안에 ‘장성 모 중기, 000’라고 적힌 현금 20만 원이 든 흰색 돈 봉투가 발견됐다는 것.

○문 경위는 곧바로 북부경찰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했는데, 경찰은 경찰청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5일간 공고를 내고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할 계획.

○“북부경찰 관계자는 “해당직원이 누가 두고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 공고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공무원

합격생들은 진실을 안다!
왜 서울고시학원인가!

→ 2008년 광주, 전남지역(국가직 포함) 행정직 151명 모집에 105명 합격, 70%합격률유율
→ 2008년 광주시 교육행정직 60명 모집에 55명 합격, 92%합격률유율 100% 모집 할인율!
→ 2008년 광주, 전남 소방직 132명 모집에 75명 합격, 57%합격률유율

2010년 소방직 3,215명 대규모 채용 [특수경력 8명 1명, 장경문 2명, 특별초빙!]

중·고 공무원 필수독이론만 찾진도

개강 ▶ 2월 1일 (주/미간편 2개월완성)

중·고 공무원 문제풀이만

개강 ▶ 2월 1일 (기출완성, 교재무료)

서울고시학원

전남대 후문앞 514-4560, kjgost.co.kr

무엇을 의사/약사 되는길

MDPass 의학원

02-5453-4311-4320 mdpasst.co.kr

서울경찰전문학원

최고의 합격률! 최상의 학습환경!

2010년 경찰시험일정

제1차: 1월25일(수)시험/1월26일(목)합격자 발표
제2차: 2월15일(수)시험/2월16일(목)합격자 발표
제3차: 3월15일(수)시험/3월16일(목)합격자 발표

국내 최고와1인1교(1인1문)강사팀(2개월 완성)

서울경찰대학 1차 100%합격률 100%합격률
광주지구 53% 합격 4차 4명 합격 4차 5명 합격 4차 5명 합격

251-7959(광주북구청전내)